

2020년 3월 29일

주일 가정 예배



예배 순서

시작기도	-----	사회자
사도신경	-----	다같이
찬 송	-----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대표기도	-----	기도자
말 씬	----- (마태복음 12장 22-29절) -----	사회자
기 도	-----	사회자
주기도문	-----	다같이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

1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후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2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맘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너른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어나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 아멘 -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임함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패역한 일을 끊고, 장부가 되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1. 귀신들린 자를 고쳐주심(22-24절).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22절). 귀신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로, 사람의 육체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심령을 어둡게 해서 죄를 짓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사람의 육체와 심령을 상하게 하여 자신의 종으로 사용합니다. 귀신의 것들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자랑,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가르쳐주십니다(약 3:14-16). 귀신에게 붙들리면 복음을 대적하고, 거짓된 길을 걸어가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귀신의 짓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린 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우리가 다 놀라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였습니다(23절).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 라고 말씀하십니다(요3:8). 그리고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가르쳐주십니다(히2:14).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망이 쓰는 죄의 권능인 율법으로부터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고전15:55-58). 그래서 귀신은 사망과 죄를 가지고 성도를 붙잡아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와 사망,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요일5:4).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육체는 죽지만,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게 됩니다. 귀신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넘어지게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승리 하였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고침 받았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비방했습니다(24절).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은 생명이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생각을 따라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비방하고, 원망하게 하는 마음이 마귀가 주는 것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붙들어서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2.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25~29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거나,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의 나라가 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가르쳐주십니다. 예수님이 귀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25~29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성령의 능력이 이미 역사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에 회개가 터지고, 심령이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 하였습니다(롬8:2).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진리의 세계 안에 들어가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장해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서로 분쟁하면 설 수 없음을 가르쳐주시면서, 귀신들이 하는 일은 교회가 분쟁하게 하고 서로 찢르고 상하게 해 스스로 망하게 함을 가르쳐주십니다. 귀신의 종이 되면 서로 분쟁하고,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은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엡4:3,4절).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나라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